

**제목: 이식증 (異食症) 환자 관련 모범 사례**  
**2012년 1월**

이식증 (異食症: pica)은 다소 생소하게 들리지만 우리 시스템 내의 흔한 안전 우려 사항 중 하나로, 식품이 아닌 물질 (라텍스 장갑, 담배꽂초, 세제, 동전 등)을 먹는 병입니다. 식품이 아닌 물질을 삼킬 경우 기도가 막히거나 치아가 손상될 수 있고, 중독 증상이나 그 외 중증 내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습적 수술 및/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식증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개인별 평가, 중재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식증을 항상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은 임상-환경적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상 모니터링:** 이식증 위험 질환 평가와 적절한 중재에는 우선 이식 행동의 바탕에 영양 결핍이나 신진대사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식 행동 중재는 해당 개인의 이력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 사람이 섭취하고자 한 비식품 물질의 유형, 그 사람이 비식품 물질의 섭취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 비식품 섭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과 상황, 비식품 물질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의 강도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환경 모니터링:**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는 이식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구체적인 통제와 규칙적인 확인 제거 작업이 필요하며 쉽게 조각내거나, 찢거나 분해할 수 없는 내구성 소재로 만들어진 의류, 가구 및 침구류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쓰레기 (담배꽂초의 적절한 폐기 처분 포함), 의료 기구 (라텍스 장갑, 약물 투여용 컵, 체온계 등), 소형 건전지를 넣는 장치 등에 대한 접근 제한.
- 삼킬 수 없는 실내 장식 사용, 전기 콘센트 안전 장치, TV, 화재 감지기, 시계, 컴퓨터 등의 가전 제품에 커버나 보호막 설치.
- 정기적으로 거주 구역을 모니터링하고 종이 클립, 펜, 종이 등 쉽게 삼킬 수 있는 물품의 제거.

**교육훈련 및 모니터링:** 종합적인 직원 교육훈련과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교육훈련은 계획서에 적혀 있는 감독과 경계 수준의 필요성, 삼킬 수 있는 물품의 제거 또는 안전한 보관 필요성, 그리고 이식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높은 부상 또는 사망 위험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식 행동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모든 거주 구역 및/또는 프로그램 구역에는 방지 장치 구역임을 알리는 명확한 표시를 해야 하며, 모든 해당 구역 방문자에게 위험 요소와 필요한 주의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계획 실행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획상 중재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기록해야 합니다.

**대응:** 비식품 물질을 섭취한 사람이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적시에 적절한 의료적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비식품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목격된 경우, 사라진 물품이 있는 경우, 삼킨 당사자가 삼켰다고 보고하는 경우, 또는 삼킨 사람에게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료적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신체적 증상에는 기침/헛구역질, 구역질, 구토, 설사, 씹씹거림이나 호흡 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 전반적인 불편감 및/또는 복부 불편감이나 통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식 행동을 보이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식증 위험 상황에 대해 높은 의식과 경계 수준을 유지하고 그것을 의무 사항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